

## 협회 소식

### 이방주 회장, 매경 '제10회 살기좋은아파트 시상식' 참석



이방주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살기좋은아파트 선발전대회' 수상 업체

시상식과 수상 노하우를 공개하는 발표대회에 참석해 주상복합아파트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롯데건설(주)의 '잠실 캐슬 골드'를 시상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장대환 매일경제신문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울 신정동 동일하이빌'이 종합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주)포스코건설의 '부산 해운대 더 센텀파크'는 국무총리상을 받았고, 대림산업(주)의 '제주 노형 e편한세상'을 비롯한 3곳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에는 일반 아파트 대형업체 부문에서 (주)동양건설산업의 '대전파라곤' 등 6곳, 일반 아파트 중견업체 부문에서는 (주)우남건설의 '파주 교하 우남 퍼스트빌' 등 6곳, 주상복합 아파트 부문에서는 롯데건설(주)의 '잠실 롯데캐슬 골드', 임대 아파트 부문에서는 '원주 금광 포란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매일경제신문, 주택 협회,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했다.

###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지난 7월 1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원현수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관련 정책 시행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하향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소형주택 의무비율 완화와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및 층고제한 완화 등을 통해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며 자형주택

### 2006년 제10회 살기좋은아파트 상 수상 업체

구분	부문	건설사	단지명
종합대상	종합	(주)동일토건	신정 동일하이빌
		(주)포스코건설	해운대 the# 센텀파크
최우수상	일반아파트 대형업체	대림산업(주)	제주 노형 e편한세상
	일반아파트 중견업체	월드건설(주)	부산 가재 월드메르디앙
	임대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용인 신갈 녹원마을1단지
우수상	일반아파트 대형업체	(주)동양건설산업	대전 파라곤
		(주)한진	용인 동백 한진에버빌
		금호산업(주)	남양주 평내 금호아울름
		쌍용건설(주)	대덕 테크노밸리 스위트홈
		GS건설(주)	양주 자이
		(주)대우건설	인산 교산7차 푸르지오
	일반아파트 중견업체	(주)우남건설	파주 교하 우남 퍼스트빌
		일신건설산업(주)	부산 용호동 일신빌
		(주)호반건설	대전 노은지구 반세미5단지
		(주)금상백조주택	대전 노은지구 양재마을5단지
		월드건설(주)	용인 동백 월드메르디앙
		(주)동보주택건설	용인 동백 동보노빌리티
주상복합아파트	롯데건설(주)	잠실 캐슬 골드	
임대아파트	대한주택공사	용인 신갈 녹원마을 3단지	
	금광건설(주)	원주 금광 포란재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및 주택투자지역의 해제요건 충족시 즉시 해제, 주택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택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또한 7월 1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과 이방주 한국주택협회 회장을 비롯한 주택업계 대표와 정책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주택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건설교통부장관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지난 6월 26일 임시 정기총회 의결을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한 정관의 일부 변경안이 인가돼 6월 30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으며 월간 'Housing & People'의 회원사 탐방과 CEO 등의 칼럼에 업계의 한강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회원사 소식

## 한경주거문화대상 시상식 종합 대상에 '오창 한라비발디' 등 16개 부문 시상



한국경제신문사가 선정하는 '2006년 상반기 주거문화대상 시상식'이 지난 7월 4일 서울 중림동 다산홀에서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는 한라건설이 충북 오창지구에 건설하는 '오창 한라비발디'가 영예의 종합대상을 차지했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오창 한라비발디'는 전통적인 집합주거지의 특성을 현대적으로 승화시켜 친환경적 단지 구성과 탁월한 건축미 등을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파트부문 대상에는 우남건설·동원개발, 웰빙아파트부문 대상은 신동아건설·우미건설이 각각 차지했다. 브랜드부문에서는 한술건설·신일이 뽑혔다.

또 △주상복합 부문 진흥기업 △오피스텔 부문 해중건설 △고객단족 부문 금공건설 △마케팅 부문 포스코건설 △환경친화 부문 우방 △단지조경 부문 현대건설 △우량기업 부문 동보주택건설 △홈네트워크 부문 반도건설 △디벨로퍼 부문 더랜드 △렌선·전원주택 부문 보보스다인시 △아파트형공장 부문 에이스종합건설 △상가부문 STA건설 등이 수상 업체로 선정됐다.

## 쌍용건설, 입주인 대상 금융·세무 토털 서비스 제공

입주자 사전 점검 서비스 등 BS 강화 호응 높아... 전 현장 확대

'이젠 아파트를 팔기만 하던 시대는 지났다?' 최근 쌍용건설 회장 김석준에 따르면 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입주 토털서비스'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서비스는 세무, 금융,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입주를 앞둔 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으로 기존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곤란을 겪는 계약자에게는 부동산 전문가가 매대를 앞선 하고, 투자자에게는 입주 시점에 맞춰 전·월세 세입자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무사는 증여 및 다주택 소유자의 세무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금융 전문가는 전금 마련은 물론 여유자금 활용 및 운용 대책까지도 수립해 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대덕 테크노밸리 쌍용 스위트타운은 2개월 만에 입주율 98%를 기록했으며, 5월말 입주를 시작한 오창 예가는 1개월만에 입주율이 6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세 2차 예가는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입주 전담팀 투입 후 입주율이 30%가량 늘어났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각종 부동산 규제에 입주에 부담을 주는 직간접 요인들이 발생해 입주 토털서비스를 계획하게 됐다"며 "예상보다 성과가 좋아 하반기에 입주 예정인 북광주 예가와 부산 사직동 예가에도 입주전담팀을 투입하는 등 서비스를 전 현장으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입주자 사전점검 서비스 등과 연계한 B/S(Before Service)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현대건설, 욕실·주방 디자인 공모 시상

현대건설(사장 이종수)이 일반 주부와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욕실·주방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을 6월 15일 오후 2시 도곡동 소재 현대건설 주택문화관에서 가졌다.

한국실내건축가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욕실·주방 디자인 아이디어 공모전은 최근 웰빙 트렌드에 따라 주거공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욕실과 주방 디자인에 대한 일반 소비자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됐는데, 주부 학생 부문으로 각각 심사해 생활환경 디자인에 관심 있는 주부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시상식을 통해 현대건설 사장상 주부 부문은 조세라 씨, 학생 부문은 김영균·김경태 씨가 수상했으며, 한국실내건축가협회장상 주부 부문은 이수진 씨, 학생 부문은 최현식 씨가 받았으며, 우수상 이상 작품 지도교수에게 주어지는 지도교수상을 비롯 총 59팀에 총 16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및 상패가 주어졌다.

현대건설은 이번 공모전에서 입상한 우수 아이디어를 향후 현대건설의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설계에 반영할 예정으로, 특히 학생 부문 우수상 이상 입상자에게는 현대건설 인사 지원시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러한 공모전은 일반 소비자들이 평소 생활을 통해 갖고 있던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건축 디자인을 전공하는 학생, 일반 주부들로부터 얻은 욕실과 주방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택 설계에 반영해 소비자가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 GS건설, 새 공정관리 시스템 TPMS 도입

하루단위 공정·비용 관리로 공기단축과 비용 절감... 2008년 전 사업장 확대



GS건설(대표이사 김갑렬)이 건설업계 처음으로 하루 단위 공정과 비용 관리가 가능한 통합공사관리 시스템인 'TPMS (Total Project management System)'를 개발, 현장 적용에 나섰다.

TPMS는 일일 업무를 시스템에서 계획하고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일일 작업관리'를 기반으로 그 날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재와 인력, 장비의 계획과 실행을 지원해 적시에 자재를 투입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협력사의 책임사공 체제와 상생 관계를 정립하는 한편 시스템에 따른 투명 경영 및 회의 문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TPMS는 현재 GS건설이 공사 중인 전국 16개 건설 현장에 적용되고 있고 오는 2008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GS건설 장기주 상무는 "전 현장의 TPMS 적용으로 공기단축과 비용 절감은 물론 불량률 등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전 및 품질강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며 "2010년 업계 1위 달성을 위한 핵심 가치로 '디지털화된 시스템 개발'을 공표, 기업 핵심 사업으로 디지털 시스템 개발에 총력을 다해 디지털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